추석연휴 직후 중간고사 중·고교생 가정 '스트레스'

성묘·여행 포기 속출…명절 의미 '퇴색'

오는 8일까지의 '황금 추석연휴'를 맞아 모두가 들떠있지만, 광주·전남지역 중·고등학생과 학부모에게는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다. 지역 내 상당수 중·고등학교가 추석연휴 직후인 9일부터 중간고사를 치를 예정이어서 시험준비에 때아닌 비상이 걸린 것이다.

특히 일부 학부모의 경우 고등학교 진학과 대학 입시에서 학교성적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을 감안, 아예 성묘 가는 것도 포기하고 있다. 서울지역 일부 학교가 추석연휴 이전에 중간고사를 치르자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시험일정을 앞당겨 조정한 것과 사뭇 대조적인 모습이다.

1일 광주시·전남도교육청과 학부모들에 따르면 고등학교의 경우 광주상무고가 9~13일, 인성고가 10~13일, 목포여고가 11~13일 각각 중간고사를 보는 등 많은 학교가 추석연휴가 끝나자마자 시험을 치른다. 12일은 3학년을 대상으로 한 전국 모의수능까지 예정돼 있다.

중학교의 경우 광주 운림중이 9~11일, 광주 수피아여중과 광양제철중이 10~12일, 광주 동아여중이 11~13일 각각 중간고사를 실시하는 등 상당수 학교가 추석 직후부터 시험을 치른다.

지역 입시·보습학원들도 시험을 앞두고 개천절 휴일인 3일은 물론, 공식적인 추석 연휴(5~7일) 첫날인 5일까지 수강생을 대상으로 보충학습을 계획하고 있다. 오는 11월16일 수능을 치르는 고 3 수험생은 물론, 대부분의 중·고등학생들은 이 때문에 중간고사 준비를 위해 오는 8일까지 집 인근 독서실을 예약해놓는 등 초비상이다.

학부모들도 시험 준비 중인 자녀 때문에 한가로이 추석연휴를 즐길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추석연휴 직후 중간고사를 실시키로 한 학교 대부분이 지난 9월 중순께 시험일정을 통보했으나 이를 알지 못한 학부모의 경우 연휴 중 여행을 계획했다가 뒤늦게 시험 일정을 알고 급히 취소하고 있다.

일부 학부모는 가족 모임은 물론 성묘도 포기하고, 시험이 끝난 이후 성묘를 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광주 D중 3학년 딸을 둔 정모(46·광주시 남구 봉선동)씨는 "학교에서 지난 2월 연간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짤 때 학생들이 추석연휴를 가족들과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중간고사 일정을 조정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해 아쉽다"며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나 학생 입장에선 올 추석연휴는 스트레스와 기나긴 긴장의 시간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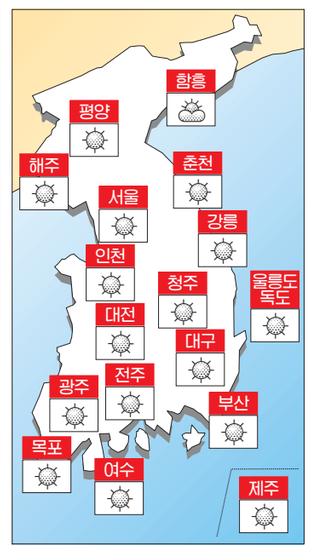
가을볕에 멸치 말리기 추석을 앞두고 완도 생일도 어민들이 멸치를 말리는 작업에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 생일도에서 잡히는 요즘 멸치는 '새랭이'(세멸)이라고 부르는 작은 종류로, 2.5kg 1박스에 4만원에 팔린다. /완도=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추석맞는 따뜻한 햇살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다.

10월 2일 (음 8월 11일) ◇전국날씨

광 주	구름조금	15~25℃
목 포	구름조금	16~25℃
여 수	구름조금	18~24℃
완 도	구름조금	15~25℃
구 례	구름조금	14~27℃
해 남	구름조금	13~25℃
장 흥	구름조금	13~25℃
고 흥	구름조금	14~25℃
순 천	구름조금	14~26℃
영 광	구름조금	15~26℃
진 도	구름조금	15~26℃
전 주	구름조금	16~26℃
남 원	구름조금	13~25℃
정 읍	구름조금	16~25℃



서해남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0.5~1.0m
먼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0~1.5m
남해서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0~1.5m
먼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0~2.0m

목포 밀물 08:52 22:18 썰물 03:16 14:50
여수 밀물 04:45 17:56 썰물 10:38 --:--

▲해뜸 06:27 ▲해짐 18:16 ▲달뜸 15:23 ▲달짐 00:13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3(화)	4(수)	5(목)	6(금)	7(토)	8(일)
날 씨						
최저/최고	14/26	14/24	15/24	14/24	13/25	13/24

전남대 내년 MBA 생긴다

〈경영전문대학원〉

2년 과정·정원 100명

내년 3월 전남대에 경영전문대학원(MBA)이 들어선다. 〈표〉

교육인적자원부는 경영전문대학원(MBA)을 신청한 8개 대학을 심사한 결과 전남대, 동국대, 숙명여대, 중앙대, 한국정보통신대 등 5개대가 예비인가를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예비인가는 대학이 제출한 교원확보계획 등의 교원 및 시설 등 준비상태의 이행을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부는 12월까지 이행실적을 확인한 뒤 최종 인가할 계획이다.

이들 5개대 경영전문대학원(박사 10명 포함해 총정원 470명)은 내년 3월 개교 예정이다.

학교별 경영전문대학원 정원은 ▲전남대 100명 ▲동국대 170명 ▲숙명여대 40명 ▲중앙대 120명 ▲한국정보통신대 40명이다.

전남대는 광주와 대전 등 지역 학생들에게 한국형 MBA프로그램으로 질 높은 교육을 할 계획이다. 동국대는 이벤트 및 컨벤션 분야, 숙명여대는 호스피탈리티(Hospitality) 분야, 중앙대는 BRICs(브릭스 :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 분야, 한국정보통신대는 IT(정보기술)-경영 융합 분야 등으로 특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할 방침이다.

새로 예비 인가된 경영전문대학원의 등록금은 학기당 500만~800만원 정도이고, 수업연한은 2년이다.

한편 내년 3월 전남대 등 5개대에 경영전문대학원이 설치되면, 국내 경영전문대학원은 지난 9월 문을 연 고려대·서강대·서울대·연세대·이화여대·한양대·인하대(물류분야) 등 7곳을 포함해 모두 12곳(총 정원 박사 60명 등 2천92명)으로 늘어난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신규 경영전문대학원 설치인가 내역

대학	대학원 명칭	학위과정	'07입학정원	수업연한	비고(등록금)
전남대	경영전문대학원	MBA(주간)	40명	2년	학기당:500만원 예정
		MBA(야간/주말)	60명(산학맞춤과정 20명 포함)	〃	
		소계	100명		
동국대	경영전문대학원	MBA(주간)	40명	2년	학기당:750만원 예정
		〃(야간)	100명	〃	
		CO-MBA(야간)	30명	〃	
		소계	170명		
숙명여대	호스피탈리티 경영전문대학원	H-MBA(주간)	20명	2년	학기당:800만원 예정
		〃(야간)	20명	〃	
		소계	40명		
중앙대	경영전문대학원	Global BRICs MBA(주간)	40명	2년	학기당:700만원 예정
		MBA(야간)	80명	〃	
		소계	120명		
한국정보통신대	경영전문대학원	Global IT-MBA(주간)	30명	2년	학기당:750만원 예정
		박사과정	10명	〃	
		소계	40명		
합계	5개			석사 460명(주간 170명, 야간 290명) 박사 10명	

학교 냉·난방도 지역 격차

전남 개선율 38%…대도시의 절반 그쳐

전남 등 농·어촌 지역 초·중·고교의 냉·난방 시설 개선 속도가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 소속 안민석(열린우리당) 의원이 1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50만2천여개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교실 가운데 냉방 시설과 난방 시설이 모두 현대식으로 개선된 교실은 30만여 개로 전체의 60.4%였다.

광역시·도별로는 경기가 80%의 개선율을 보여 가장 높았고, 부산(69.1%)과 서울(68.8%) 등 대도시들이 뒤를 따랐다. 반면 전남 38.7%를 비롯해 제주 21.4%, 경북 36.5%, 강원 38.5%, 전북 39.5% 등 농어촌 지역은 낙후된 것으로 조사됐다.

냉·난방 시설중 어느 하나라도 개선된 비율에서도 서울과 대구는 100%, 인천 98.9% 경기 98.6% 등이었으나 제주 42.9%, 경북 57.1%, 전북 60%, 강원 65.2%, 경남 66.7% 등 농·어촌 지역의 개선율은 여전히 낮았다.

특히 2001년부터 중앙정부 차원에서 5천800억원을 투입해 추진해온 학교 냉·난방 시설 개선사업이 올해부터는 열악한 재정에 시달리는 각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돼 앞으로도 지역간 냉난방 시설 격차 해소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놀이기구서 추락 어린이 2명 중상

1일 오후 1시50분께 대전 유성구 도룡동 꿈돌이랜드에서 회전형 놀이기구 '스윙드롭'을 타고 있던 정모(12·대전 동구)양과 곽모(11·대전 동구)양 등 2명이 지상 35m 지점에서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중상을 입었다.

정양은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병원으로 후송된 곽양도 오른쪽 팔과 왼쪽 다리가 부러지고 턱을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

'스윙드롭'은 최고 40m의 높이에서 빠른 속도로 360도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는 탑승기구다. /연합뉴스

매 날려 활주로 새 떼 쫓는다

공군, 충돌 방지 연구

'살아있는 매를 날려 활주로의 새 떼를 쫓는다.'

공군작전사령부는 1일 살아있는 매를 훈련시켜 활주로 상공의 새 떼를 쫓아내는 방안을 연구중이라고 밝혔다. 철새 떼가 활주로에 이·착륙하는 항공기와 충돌(Bird Strike)하거나, 엔진에 빨려들어가 고장을 일으켜 안전운항을 심각하게 위협하기 때문이다.

공군에 의하면 항공기와 새 떼의 충돌 사고는 연평균 20~30여 건. 미국은 해안가에 인접한 비행장에서 매를 이용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검독수리를 날려 새 떼를 쫓아내고 있다. 몽골지역에서는 여우사냥에 동원되고 있다.

조류를 퇴치하기 위해 사람을 이용하기도 한다. 'BAT'(Bird Alert Team)라고 불리는 군인들은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 활주로에서 괭과리·징·확성기 등으로 새들을 쫓아 낸다.

공포탄인 'SHOT GUN'과 자동 폭음 방사기도 사용되고, 새들이 가장 싫어하는 8종류의 소리를 2분 간격으로 발생시키는 'A/V 알람기'가 이용되기도 한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인터넷 '오픈마켓'서 '짝퉁' 63억어치 유통

서울경찰청은 1일 해외 유명 브랜드를 위조, 가짜 명품 의류와 골프 가방을 제조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의류 제조업자 김모(42)씨를 구속하고 이모(34)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국내 유명 인터넷 쇼핑몰에 '오픈마켓' 형태로 입점, 이들이 만든 짝퉁 상품을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주부 오모(45)씨 등 4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리바이스·폴로·버버리 등으로 위장한 의류나 캘러웨이 등으로 가장한 골프가방 등 짝퉁 6만여점(정품시가 63억여원 상당)을 만들거나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오픈마켓(open market)=인터넷 쇼핑몰 중개업체가 온라인 상에서 판매자와 구매자가 물품을 사고 팔 수 있는 '장터'를 제공해주는 형태. 판매자가 물품을 구입해 직접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일반 인터넷 쇼핑몰과 다르다.